

연내 1000만 화소폰 출시 눈앞

메가픽셀폰 전체 80% 이상 점유 ... 중견들도 300만화소폰 대열 합류



독특한 디자인과 다기능 필수

초기 VGA급(30만 화소) 카메라폰을 열외로 하고 국내 카메라폰 화소 경쟁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3년 10월 삼성전자와 팬택계열이 '국내최초' 메가픽셀폰 개발업체 타이틀을 놓고 벌였던 신경전이 효시로 회자된다. 비록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거뒀지만 당시 후발 주자였던 팬택계열은 기술대결을 인정받아 단박에 내수 점유율 두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메가픽셀폰은 매출확대에 특특히 기여를 했다.

130만 화소폰 출시로 불거진 메가픽셀폰 경쟁은 이듬해 5월 자존심을 구겼던 LG전자가 200만 화소폰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2라운드로 진입, 개발선점을 위한 업체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불과 두 달 후인 7월에 3사가 나란히 300만 화소폰을 출시하면서 정점에 다다랐다.

팬택계열 양용모 차장은 "당시 카메라폰 강국이었던 일본도 300만 화소폰을 개발한 업체는 카시오가 유일해 고화소폰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라며 "한일간 기술격차를 1년에서 1달로 좁히게 만든 의미 있는 경쟁"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국내 3사는 단순 화소 경쟁에 그치는 것이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배 광학줌을 탑재한 것을 비롯해 LG전자와 팬택계열이 각각 메가스터 및 기계식셔터 방식을 도입, 디지털카메라 수준의 질적 기능강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같은 해말 500만 화소폰으로 시장을 평정한데 이어 올해 700만 화소폰(모델명: SCH-V770)을 개발해 세계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카메라폰 화소 경쟁의 종지부를 찍는 제품으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광학 3배줌, 디지털 5배줌이 가능하고 자동초점(Auto Focus), 디카급 플래시(Flash) 등 고급 디지털카메라 수준의 기능이 대부분 적용됐는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카메라폰 최초로 전문가용 디지털카메라의 교환렌즈와 같이 망원/광각 컨버전 렌즈를 교환, 장착할 수 있고 망원렌즈를 장착할 경우 광학 5.1배줌까지 가능해 디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대체제' 라는 점에

메가픽셀폰 시장석권에 나서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행보가 눈부시다. 현재 카메라폰 화소수 경쟁은 지난해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계열 등이 200만 화소폰과 300만 화소폰을 잇따라 출시하면서부터 본격화되더니 지난해말 삼성전자가 500만화소폰을 전격 선보이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였다. 그러던 것이 올 7월 삼성전자가 700만 화소라는 초고화소폰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데 이어 LG전자도 신개념 500만 화소폰을 내놓으며 경쟁의 끈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글 | 최광열 기자(모바일타임스)

서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독주로 고화소 경쟁이 주춤해진 사이 소비자들의 관심도 고화소에서 다기능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라 디자인 및 부가기능 차별화 여부에 따라 업체들의 희비는 엇갈리게 되었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 단말기 구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로 떠올라 캄코더, 가로 슬라이드, 팝업폰 등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신개념 제품이 연이어 등장했고, 폴더와 슬라이드로 양분된 휴대폰 시장에 일대 변화를 몰고 왔다.

삼성전자의 일명 '가로본능폰'으로 불리는 'SCH-V500'은 출시 이래 50만대 판매를 기록할 만큼 단번에 히트모델로 부상했다. 삼성은 여세를 몰아 지난 3월 후속모델 '가로본능 II 폰'(모델명: SCH-V600, SPH-V6000)을 선보여 가로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8월 출시한 500만 화소 디카폰에 카메라가 장착된 부분이 180도 회전 가능한 트위스트 디자인을 적용, 셀프 카메라 기능을 중요시하는 젊은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의 밀라노 현지 디자인센터에서 직접 고안한 스포츠카폰과 폴더를 열어 양손으로 사용이 가능한 3D 게임폰 등으로 맞춤형 디자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팬택계열도 'iF디자인상'을 수상한 목걸이형 MP3폰과 캄코더 디자인의 'PH-L4000V', 정사각형 슬라이드폰에 이어 최근에는 회전형 가로보기 디자인의 'i-슬라이드폰'을 출시해 디자인 전문업체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아울러 팬택계열은 4분기에 500만 화소폰을 출시할 방침으로 알려져 연말쯤 또 한차례 화소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화소만 구현한다면 올해 안으로 1000만 화소폰 출시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라며 "당분간 업체들은 카메라 성능개선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 화소 경쟁은 일단 올해 말까지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견업계 개발 본격화

고화소 카메라폰 개발을 앞당기는데 비단 메이저들의 공적만 있었던 것은 아

니다. 중견업체들은 그간 메이저들의 전유물이었던 200만 화소급 이상 고화소폰 시장에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난 8월 SKY텔레텍은 중견업체 가운데 최초로 320만 화소 카메라폰을 출시, 지난해 상반기 메가픽셀폰을 선보인 이후 1년 만에 300만 화소 시대를 열었다. 이 회사는 위성DMB 단말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200만 화소 위성DMB폰(모델명: IMB-1000)과 함께 게임폰 등 지난해 말 출시한 'IM-7700' 이후 주력모델 전부를 메가픽셀폰으로 포진 시켰다.

VK는 저가형 메가픽셀폰 'VK220C' 후속작으로 반자동 슬라이드 타입의 200만 화소 MP3폰을 30만원대에 선보여 실속형 고기능 제품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을 파고드는 전략.

VK 장치영 과장은 "200만 화소급 카메라와 로밍기능 등 부가기능을 최대한 반영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적절한 출시시기가 마케팅의 핵심 전략이니 만큼 시장흐름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GSM전문업체 이노스트림도 최근 200만화소폰 개발을 마쳤으며, 지난해말 200만 화소폰을 선보인 KTFT도 연내 300만 화소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견 업체들이 200만화소급 이상 고화소 제품을 선보이는 이유는 아직 100만 화소급 모델이 시장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일단 100만 화소폰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대신 200만 화소폰 시장을 타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KTFT 원유창 팀장은 “메가픽셀 폰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메이저와의 출시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며 “화소경쟁이 당분간 300만 화소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제품 출시를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3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폰이 다수 출시되었지만 국내 메가픽셀폰 시장에서는 여전히 100만 화소급 모델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이어 100만 화소대 제품이 인기를 이어가는 이유로는 200만 화소대와 화질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보급형 모델 확대로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30만 화소대 초기 카메라폰은 장년층을 겨냥한 실버폰 또는 모바일 뱅킹 전용폰 등 디자인 및 특정기능을 강화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명맥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만 화소대 제품은 DMB폰, 게임폰 등 기능이 결합된 컨버전스폰 열풍과 더불어 WCDMA 서비스의 가시화로 증가세를 보여 3분기부터 신제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실상 카메라폰의 주류로 부상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가픽셀폰 보급화를 위

한 업체들의 라인업 확대로 100~200만 화소급 모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며 “30만 화소대와 300만 화소 이상 모델들도 가격 및 기능 차별화를 요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시장 공략 활발

내수에 이어 수출용 물량도 고화소폰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카메라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거는 업체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올해 중국 카메라폰 시장은 지난해 1300만대에서 4배 가량 성장한 5200만대 규모로 이중 20%인 1000만대 가량을 메가픽셀폰이 차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중국에 공급하는 휴대폰 10대 가운데 4대를 메가픽셀폰으로 판매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중국 출시 휴대폰 모델의 70% 이상을 메가픽셀폰으로 정하는 등 제품 다양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500만 화소 카메라폰을 비롯한 기능과 디자인을 차별화한 신제품 5종을 출시하고 중국 공략을 본격화했다. 중국 수출용 500만화소폰 모델 'SCH-M509'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월드 퍼스트 휴대폰으로 해외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공급되는 500만 화소 카메라폰이며, 1600만 QVGA 컬러 LCD와 파일 보기 등 첨단 기능을 다수 탑재했다.

또한 디자인과 메뉴이동 속도가 개선된 가로본능폰 'SCH-E159'와 3D 문자메세지 기능을 구현한 세계 최초의 3D SMS폰 'SCH-X889'도 중국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제품으로 고가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는 지난해 11월 중국 최초의 300만 화소폰을 출시한데 이어 올해 500만 화소 이상 제품을 추가로 출시, 화소 경쟁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국 시장에 총 10개의 카메라폰 모델을 공급하고, 수출물량 30% 가량을 메가픽셀폰으로 채울 방침이다.

팬택계열도 올해 100만대 가량의 카메라폰을 중국시장에 공급할 계획인데 그 중 60만대 가량을 메가픽셀 이상의 고화소폰으로 채울 계획이다.

반면 3G 시장은 메가픽셀폰이 견인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NEC에 이어 WCDMA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한 LG전자는 3G 시장에서 올해 600만대 이상을 목표로 세웠고 삼성전자와 팬택계열도 유럽, 미주 등에 고화



소폰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중국과 유럽 및 미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외시장이 여전히 VGA급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국산 메가픽셀폰 수요는 내년 상반기 경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3G 시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미주시장도 교체수요 대부분이 저가 카메라폰 위주인 것으로 알려져 메가픽셀폰 전환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

업체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워 고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나 비(非) 카메라폰 비중은 여전히 절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그나마 메가픽셀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시장의 행보에 따라 점유율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품 국산화 선결돼야

시장조사업체인 ABI 리서치(ABI Research)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2년내 카메라폰이 로우엔드급 디지털 카메라 시장 대부분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내년 초 130만 화소, 이듬해 2~4 메가픽셀 카메라폰이 일반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이 경우 굳이 소비자들이 로우엔드급 디지털 카메라를 필요로 하지 않아 디카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카메라폰이 당장 디카 시장 전체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디카 성능은 렌즈, CCD, DSP 등에서 좌우되는데 기존 디카에 렌즈·CCD·DSP를 그대로 휴대폰에 채용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 또한 카메라폰 렌즈는 디카에 비해 크기가 작아 광량이 줄어들어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화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첨단 렌즈 등 부품 국산화에 사업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 센서의 경우 현재 시중에 출시중인 200만 화소폰 이상의 제품들 대부분은 일본산 CCD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 들어 저조도 문제를 개선하고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국내 CMOS 부품 업체들의 활약으로 내년부터 CCD를 상당량 대체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고화소폰 최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휴대폰 제조사와 부품 업체들간 협력강화와 중견 업체들의 수출 판로 다변화를 지원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